



수원시 박물관과 함께하는 야간 답사

달빛과 함께 하는 박물관 역사 산책



- 프로그램명** 달빛과 함께하는 박물관 역사 산책
- 기 간** 2016년 7월 6일~8월 31일 매주 수요일 19:00~21:00 (총 9회)
- 대 상** 어린이 및 가족, 일반 성인 등 누구나
- 장 소** 수원화성박물관 출발 → 해당 코스별 운영
- 모집기간** <7월 교육> 2016년 6월 24일~마감시까지
<8월 교육> 2016년 7월 13일~마감시까지
- 모집인원** 회당 선착순 30명
-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hsmuseum.suwon.go.kr>) 로그인
- 교육/행사 - 어린이/가족교육 - 기타교육에서 신청
- 수 강 료** 무료
- 문 의** 031-228-4216~7



세부 운영코스 안내	1차 코스 (달빛과 마주하는 수원화성)	2차 코스 (달빛에 그려진 수원근대)	3차 코스 (달빛에 비친 사람세상)
	수원화성박물관 → 화홍문 → 방화수류정 → 북암문 → 연무대 → 동북공심돈 → 창룡문 → 봉돈 → 수원 화성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 아담스기념관 → 방화수류정 → 화홍문 → 종로교회 → 여민각 → 수원천 → 남수문 → 수원사 → 수원화성 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 화성행궁 → 나혜석 생가터 → 생태교통마을 → 팔부지거리 → 화홍문 → 방화수류정 → 아담스기념관 → 수원 화성박물관

1차 코스 ‘달빛과 마주하는 수원화성’

수원화성박물관 → 북수문(화홍문) → 동북각루(방화수류정) → 용연 → 북암문 → 동북포루 → 동암문 → 동장대(연무대) → 동북공심돈 → 동북노대 → 창룡문 → 동일포루 → 동일치 → 동포루 → 동이치 → 봉돈 → 수원화성박물관

▶ 수원화성(사적 제3호)

수원 화성(華城)은 조선후기 정조(正祖)시대 성곽과 많은 부속건물, 도시기반시설과 생산기반시설들의 총화로 이루어진 자족적(自足的) 계획도시의 건설이었다. 화성성역(華城城役)은 조선후기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주체적이고 실용적인 태도, 전통적인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안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1794년 1월 7일 돌을 채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26일 총리대신(總理大臣)에 우의정 체제공(蔡濟恭 : 1720 ~ 1799), 감동당상(監董堂上)에 화성유수 조심태(趙心泰 : 1740 ~ 1799)를 임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국왕으로부터 신료와 일반 백성의 노력이 결집되어 2년여 만인 1796년(정조20) 9월에 공사를 마친 뒤, 10월 16일 낙성연(落成宴)을 열고 완성하였다. 사적 제3호로 지정된 화성은 전체 길이 5,744m로 대부분을 돌로 쌓았으며, 일부 중요한 방어 시설은 벽돌로 쌓았다. 4개의 성문과 5개의 암문, 2개의 수문, 2개의 은구, 2개의 장대, 2개의 노대, 3개의 공심돈, 4개의 각루, 5개의 대포를 설치한 포루, 5개의 포루, 1개의 봉돈, 8개의 치, 3개의 포사, 용도 등의 시설물이 있다.

화성성역은 국왕 정조의 장기적 정치 구상에 따라 훗날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옹거할 정치적·군사적 거점으로 추진되었지만, 이는 조선왕조의 발전방향이나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상업과 농업, 교통과 상품 유통의 중심도시로 건설되었다. 이 원대한 구상은 신민(臣民)의 협조와 참여에 힘입어 실현될 수 있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실제적 구상과 작업과정에는 중흥을 맞았던 조선 문화의 세련된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정조의 의지 외에 여러 신료의 학문과 경륜, 민(民)의 호응, 그리고 조선정부의 충실한 재정과 운용능력 및 조선왕조의 경제적 문화적 역량 등이 총체적으로 투입되어, 왕조 중흥과 왕권 강화의 표상이라고 할 위대한 민족문화유산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성 신도시를 둘러싼 시설인 화성 성곽은 조선의 고유한 성곽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도 조선 후기까지 축적된 전통적 성곽 건설 경험과 중국으로부터의 최신 과학 지식을 수용한 뛰어난 성곽으로 평가받아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북수문(화홍문)

화성에는 북수문(北水門)과 남수문(南水門) 등 2개의 수문이 있었다. 화성의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수원천으로 인하여 2개의 수문을 수원천 위에 세우게 되었다. 2개의 수문은 성곽의 일부로서 화강암과 벽돌로 쌓았는데, 북수문은 칠간(七間)수문, 수량이 불어나는 남수문은 구간(九間)수문으로 만들었다. 각각의 수문 내부에는 쇠창살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남북 수문은 평상시에는 수문·교량으로 이용되고 비상시에는 총포와 대포 구멍을 갖춘 군사시설로서 실용적 기능성과 아름다운 외관이 조화된 당대의 대표적 시설물이었다.

○ 북수문(北水門 : 華虹門)

흔히 화홍문이라고 불리는 북수문(北水門)은 장안문의 동쪽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북수문은 그 위치가 용연(龍淵)이라는 연못이 있는 곳이고, 동북각루가 놓여 있는 등 비교적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 까닭에 남수문에 비하여 장대하고 꾸며져 있다. 정조 18년 2월 28일 터담기 공사에 착수하여 8월 3일에 상량이 이루어지고, 이듬해 정조 19년 1월 13일 문루가 준공되었다. 편액은 유한지(兪漢芝)가 썼다.

광교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어 성내 민인들은 여름철 장마 때마다 심한 물난리를 겪고 있었으므로 성

역 때 먼저 물길을 파서 넓히는 한편, 7칸의 홍예석교(虹蜺石橋)를 마련하였다. 북수문에는 물이 흐를 수 있는 7개의 홍예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화홍문’이라는 누각이 세워져 있다. 누각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누마루형식으로 하고 초익공(初翼工)의 겹처마이며, 지붕은 5량 팔작지붕이다.

누각을 갖춘 북수문은 홍예에서 쏟아지는 장쾌한 물보라와 주위 환경이 잘 어우러져 수원 8경의 하나로 ‘화홍관창(華虹觀漲)’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놓았다. 홍예문 위로는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성가퀴를 쌓고 여러 개의 총안을 뚫어 놓았다. 이곳은 성내에서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방화수류정·용지의 아름다움과 잘 어우러져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곳이다. 북수문의 누각은 평상시에는 수문·교량으로서, 비상시에는 군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안과 포혈을 갖추어 설계된 실용성과 아름다운 외관이 조화된 화성 성곽의 대표적인 시설물의 하나이다.

▶ 동북각루(방화수류정, 보물 제1709호)

동북각루(東北角樓, 訪花隨柳亭)는 용연(龍淵)의 위에 있으며 1794년(正祖 18) 9월 4일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7일에 상량하고 10월 19일 완성되어 공사기간이 불과 한달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음해에 있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에 맞추어 미리 공사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이 곳의 지형은 광교산 지맥이 남쪽으로 뻗어 선암산(仙巖山)이 되고 다시 서쪽으로 감돌아 몇 리를 내려가서 용두(龍頭 용연 위에 뿔쭙 솟은 바위)에서 그치는데 여기에 언덕을 따라 성을 쌓고 바위 위에 터를 잡아 각루를 설치하였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려(華麗)하고 우아(優雅)한 정자(亭子)이기도 한 이곳에 앉으면 팔달산 서장대, 장안문과 각건대, 동장대 그리고 광교산과 숙지산, 멀리는 관악산, 남쪽의 독성산(禿城山) 등 화성과 화성을 둘러싼 아름다운 풍광(風光)의 조화를 즐길 수 있는 요지(要地)이다.

편액(扁額)은 꽃을 찾고 버드나무를 따라 노닌다는 뜻의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라 하였다. 정조(正祖)를 모신 자리에서 채제공이 정명도(程明道)의 「우성(偶成)」이라는 시(詩)에 “雲淡風輕近午天 傍花隨柳過前川 時人不識予心樂 將謂偷閑學少年”(『二程全書』卷 38. 外書 明道文集)서 방화수류(傍花隨柳)를 따서 정자(亭子)를 지었는데 방(傍)자를 방(訪)자로 바꾸어 붙였다. 편액은 전참판 조운형이 썼다. 용두위에 위치하고 있어 용두각(龍頭閣)이라고도 한다. 1795년 원행시에 이곳에서 정조는 활을 세발 쏘아 모두 맞히어 무(武)를 높이는 뜻을 보이였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의 구획이 복잡한 듯하지만 정자 안쪽에 국왕과 근신들의 자리를 배치하고, 일반신료들은 남쪽으로 길게 만든 공간에 상(床)을 놓고 마주앉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유락의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연이란 연못을 파고 연못 가운데에는 작은 섬을 만들어 화목을 심어 동북각루와 어우러지게 꾸몄다. 바로 이점이 비상시의 군사지휘소인 각루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 북암문

암문(暗門)이란 대문(大門)과 대문사이에 위치한 작은 사잇 문(門)이다. 일반적으로 암문은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만들어 들통으로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사람과 가축, 수레, 양식, 무기 등의 군수물자(軍需物資)를 성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군사시설물이다. 유사시에 흙을 쌓아서 문을 막으면 성벽과 똑 같게 되는데 형편에 따라 통제 놓기도 하고 쉽게 막을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었다. 화성에는 북암문, 동암문, 서암문, 서남암문, 남암문 등 5개의 암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팔달문과 남수문터의 중간에 위치해 있던 남암문은 복원되지 않은 상태이다.

▶ 동북포루(角巾臺)

치성(雉城)의 위에 지은 집을 포루(鋪樓)라 한다. 치성위의 군사들을 가려 적군이 보지 못하게 하는 곳이다. 성체에서 철(凸)자 모양으로 불거져 나온 모양을 하고 있다. 포루(砲樓)와 마찬가지로 치성(雉城)위에 세웠으며 용도(用度) 역시 비슷하다. 모두 석재(石材)로 만들어 졌다.

▶ 동암문

▶ 동장대(연무대)

동장대(東將臺)는 화성의 동북쪽에 있다. 서장대와 함께 화성 동쪽방면의 군사지휘소 이자 군사훈련장이다. 편액은 연무대(鍊武臺)라고 하였다. 이 장대는 선암산의 일맥이 매향동을 안고 굽이쳐 도는 가운데 등성이가 험하게 높이 솟아오른 고지대에 세워졌다. 장대에 올라가 보면 화성의 동쪽을 띠처럼 둘러 성중을 굽어보는 전망이 좋아 대장이 먼저 점거할 만한 위치임을 알 수 있다.

▶ 동북공심돈

공심돈(空心墩)은 벽돌로 3면에 섬돌을 쌓고 그 가운데를 비워 둔 군사용 시설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화성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곽 시설물이다. 일종의 초소구실을 하는 돈대(墩臺)로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대를 아주 높게 설치하였다. 높은 돈대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가운데를 2층으로 구분하여 판자로 루(樓)를 만들고, 사다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위 아래로 구멍을 많이 뚫어서 바깥의 동정을 엿볼 수 있게 만들었다. 불랑기(佛狼機 총포의 일종), 백자총(百字銃) 등을 발사하여도 적이 화살이나 총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속칭 소라각이라고도 한다.

○ 동북공심돈(東北空心墩)

동북공심돈은 동북노대의 서쪽 71.28m(60步) 쯤 되는 거리로 성탁(城托 성안쪽을 돌구어 쌓은 곳)의 위에 있다. 1796년(正祖 20) 7월 19일 완성되었다. 여장안에는 중국의 요동(遼東)에 있는 계평돈(薊平墩)을 본떠서 벽축(壁築)으로 동그렇게 돈을 만들었다.

▶ 동북노대

노(弩)는 활에서 발전된 무기로 활을 활틀에 직각으로 끼우고 활틀 뒤 끝에 구멍을 파서 청동제의 발사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활보다 훨씬 멀리, 여러 다발을 한꺼번에 연속으로 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활을 발사하는 원리는 서양의 석궁(石弓)과 비슷하다. 따라서 노대(弩臺)는 노수(弩手 노를 쏘는 사람)를 매복시키는 곳으로 시야가 먼 곳에 설치 한다.

▶ 창룡문

○ 4대 성문

화성은 대문(大門) 4곳과 암문(暗門) 5곳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화성의 4대문 가운데 장안문과 팔달문이 각각 정북(正北)과 정남(正南)으로 세워졌을 뿐이고 창룡문은 정동(正東)에서 북쪽으로, 화서문은 정서(正西)에서 북쪽으로 거의 북북서(北北西)를 향하여 장안문과 일직선상에 세워졌다. 그것은 화성이 팔달산 줄기를 타고 축조되어 서쪽으로 대문을 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장안문과 팔달문은 대로(大路 현재의 팔달로)로 이어졌고 창룡문은 화성행궁에서 정면으로 난 길을 따라 오교(午橋 현재의 매향교)를 건너 통행하게 되어 있었다. 이 두 길이 십자대로(十字大路)를 이루며 화성의 간선도로가 되었다.

대문의 수비는 장용외영(壯勇外營)에서 담당하였다. 1798년(正祖 22)에 장용외영을 개혁하여 장락위(長樂衛)를 설치하고 그 아래 5위(衛)를 두었는데, 화성의 4대문 이름을 따서 창룡위, 팔달위, 화서위, 장안위라 하고, 중위를 신평위라 하였으며, 화성의 정군(丁軍)으로 대(隊)를 편성하여 수비하도록 하였다.

○ 창룡문(蒼龍門)

창룡문은 화성의 동문이다. 화성행궁으로부터 1,235.5m(1,040步)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동쪽을 향하여 자리잡았다. 창룡(蒼龍)은 『周禮(주례)』 「庾人(유인)」 편에 “말이 팔척이상(八尺以上)이면 용(龍)이 된다”고 하였으며 그 주(注)에 율령을 인용하여 “창룡을 탄다. 창(蒼)은 청색(靑色)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회남자(淮南子)』 「시칙훈(時則訓)」에 봄의 방위는 동방(東方)이고 이때 천자(天子)의 옷은 청의(靑衣)를 두르고 창룡(蒼龍)을 탄다고 했다. 『古詩(고시)』에서도 “좌창룡 우백호”라 했다. 위의 용례(用例)들을 보면 창룡(蒼龍)은 곧 청룡(靑龍)이며 동쪽 하늘을 맡은 태세신(太歲神)으로 화성의 동쪽을 맡긴다는 의미로 창룡문이라 이름을 정한 것이다. 편액은 판중추부사 유언호(兪彦鎬 號는 則止軒 1730 ~ 1796)가 썼다.

▶ 동일포루(東一鋪樓)

▶ 동일치

치성(雉城)이란 것은 성곽의 요소에 첩(凸)자 모양으로 튀어 나온 구조물로서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적군(敵軍)을 공격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치(雉)는 평으로서 능히 제 몸을 숨기고 밖을 잘 엿보기 때문에 그 뜻을 따서 치성이라고 하였다.

▶ 동포루

포루(砲樓)는 적이 성에 접근하거나 달라붙는 것을 막는 누대로 치성(雉城)의 발전된 형태이다. 대포(大砲)를 쏠 수 있는 시설로서 화성에는 모두 5개의 포루를 만들었다. 화포(火砲)를 많이 감추어 두고 위아래에서 한꺼번에 발사하여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주도록 만들었다. 4개의 포루는 동일한 규격이고 서포루만 약간 작게 만들었는데 첩(凸)자모양으로 성벽에서 튀어나오게 만든 것이 치성(雉城)과 비슷하고 위에 누각을 지었다. 포루는 3층으로 그 가운데를 비운 것이 마치 공심돈(空心墩)과 비슷하다. 모두 벽돌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 동이치

▶ 봉돈

봉돈(烽墩)은 일자문성(一字文星)의 위와 동이포루와 동이치의 사이에 있는데 화성행궁(華城行宮)에서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위치이다. 풍수지리상 화성행궁의 안산(案山)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다하여 안산봉수(案山烽燧)라고도 한다. 1796년(正祖 20) 6월 17일에 준공되었다. 화성(華城)의 사주경계와 정찰임무는 물론 변방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빨리 탐지하는 척후(斥候)의 임무를 띠고 있다. 감관(監官) 5인과 봉군(烽軍) 15인이 봉돈을 지키도록 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봉수대는 흙이나 돌로 쌓아 설치하였는데 비해 화성의 봉수대(烽燧臺)는 벽돌로 쌓아 올려 그 규모와 외관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정교하고 장려(壯麗)하게 축조되었다.

저녁마다 남쪽의 첫째 봉화 하나를 올리면 동쪽으로 용인 석성산(石城山)의 봉화(烽火)가 응답하고 서쪽으로는 본부의 흥천대(興天臺)에 있는 봉화가 응답한다. 다만 흥천대의 봉화는 바닷가에 위치하여 봉화로 직접 전하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부의 서쪽 30리 지점인 서봉산(棲鳳山) 화성군 정남면 문학리와 봉담면 덕리의 경계에 간봉(間烽)을 두어 오고 가는 봉화를 이 곳에서 전달하도록 하였다. 화성봉돈의 기능이 한양의 목멱산과 같이 수륙(水陸)의 정보 전달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 성벽(城壁)

화성의 성곽 총연장은 5,743.56m(4,600步)인데 그 중에 문루포루포대공심돈 등의 성벽 약 739.69m(635步 4尺)을 제외하면, 성의 연장은 4,949.87m(3,964步 2尺)에 이른다.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산성(山城)부분 2,944步 4尺, 평지(平地)부분 1,019步 4尺이라고 하였다. 성의 전체적인 모양은 버들잎처럼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긴 형태이다.

성벽은 기본 석축은 장대석을 원칙으로 하며, 높이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6m로서 평균 5m내외이다. 일반적으로 평지 부분의 성이 경사지부분의 성보다 높게 축조되었다. 성벽이 얇은 바닥은 위치에 따라 토질이 달라 구간마다 알맞게 기초를 다졌다. 성벽 위에는 높이 1~1.35m, 평균 1.2m 정도의 여장(女牆 여담 또는 성가퀴)을 쌓았으며, 여장 1타(堞)의 길이는 평균 3.6m~4.5m 정도이다. 안팎의 양옆을 깎아서 좌우에 총쏘기가 편안하게 만들었다. 각 타마다 총안 3개를 내었는데 중앙은 근거리용, 좌우는 원거리용 총안이다. 여장의 두께는 보통 0.75m~0.9m이며 벽돌로 된 것은 0.6m 정도 되는 것도 있다. 성벽의 석축은 문루각루 등 중요시설물에는 잘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는 마름돌이나 막돌을 썼다.

성벽의 하부에는 큰돌을 놓고 상부에는 작은 돌을 썼다. 그 단면은 활모양으로 휘어져 위로 올라가면서 중간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꺾(圭)자형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 수직 꺾자형 성벽은 함경도 종성(鍾城) 성곽에서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적을 방어할 때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가진 것이다.